

통합복지정보제공 ‘원스톱 서비스’ 마무리 단계

제주복지 ‘넷·통·콜·TV’ 선순환 체계 본격 가동 눈앞
‘복지BOOK’ 연말 제작 … 복지정보 제공 환경 개선

‘지역복지(통합복지하 나로) 원스톱상담 지원서 비스’(이하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복 지정보제공 환경 조성사업 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최종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보 과잉시대에 도민들 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정 보를 찾는 데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는 인터넷 웹 사이트 ‘제주복지넷(net)’,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제주복 지통’, 전화상담 ‘제주복지 콜(call)’, 지상파방송 ‘제 주복TV’, 출판물 ‘제주복 지북(book)’ 등 복지정보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 지협의회(회장 고승화)에 서는 제주지역 사회복지시 설과 단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전화와 상담전 화 연결, 온라인 상담이 가 능한 스마트폰 애플케이 션 ‘제주복지통’을 지난해 개통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는 1833-9514를 대표전화로 하는 ‘제주복지콜’을 본격 운영 하기 시작했다.

‘제주복지콜’은 제주사 회복지협의회가 1차 상담 을 담당하고 전문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8개 전문기관이 2

차 상담을 담당하도록 연계 기반을 갖췄으며, 특히 이 용자가 전화번호만 남겨도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상담 을 할 수 있는 ‘콜백’ 시스템 과 문자상담 전용 번호 1877-2126 운영, 기존 수 어상담 서비스 연결을 통해 적극적인 복지정보와 상담 에 나서고 있다.

‘제주복지TV’는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복지시설과 복지서비스 이 용방법에 대해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년 부터는 지상파 방송에 의존 하는 형식을 탈피하여 자체 구축된 방송제작 환경에서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할 계획이다.



10월 중 공식 운영이 시 작되는 ‘제주복지넷’(www. jejubokji.net) 사이트는 생 활에 필요한 복지정보와 소 식들을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 등이 가 능하도록 콘텐츠를 구성하 였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11월 다양한 복지정 보를 수록한 ‘제주복지북’ 발간으로 ‘넷-통-콜-

TV-북’으로 선순환되는 복지정보제공 환경 조성을 최종적으로 완료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관 계자는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정보를 편리한 방 법으로 찾아볼 수 있는 여 건이 갖춰졌다.”면서 “지속 적인 정보 업데이트와 기능 고도화를 통해 복지정보제 공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 가겠다.”고 했다.



“우도효도차-탐씨로 나눔 실천해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17일 우도면사무소에서 우도주민들의 병·의원 이용을 돕는 ‘우도 효도차-탐씨’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 어 공모 선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다.

지면소개

- 종합2면
“돌봄 수요 확대...사회복지 예산 확대 필요”
- 특집 4면
제21회 사회복지의날 시상식 및 기념이벤트
- 오피니언..... 7면
시론·법률상담터

<나눔 참여기관·기업광고⑤>

내 몸이 예전같지 않을 때

광경옥고

귀한 분만 드시는...

광경옥고

광동제약(주)
121-711 (02-3123-1100)

광고심의필 : 2020-1531-003800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돌봄 수요 확대…사회복지예산 확대 필요”

보건복지안전위,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 가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지난달 22일 현장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 직능단체장 간담회 ‘사회복지 현장 소통의 날’에 참석했다. <사진>

이 날 간담회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홍

명환 부위원장, 고은실·김경학·이승아 의원과 사회복지 직능 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세수감소로 인한 사회복지예산 대폭 축소 우려 문제 등 사회복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복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직능단체장들은 사회복지예산 축소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와 비대면 복지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예산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 84개 시설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를 미적용 시설 근무자에 적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시설 열화상 카메라 지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 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마스크 착용과 비말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된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도의원 10명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지난달 9일 위촉장 전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는 지난 달 9일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해 제주도의회 의원 10명을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의원은 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대진·김용범·양영식·오영희·정민구·조훈배·한영진 의원 등 10명이다.

본부는 또 2012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

한 조례’를 발의한 윤두호 전 의원을 본부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12년 1월 11일 전국 최초로 장기기증 관련 조례를 제정해 매년 9월을 ‘제주도 장기기증의 달’로, 매년 9월 9일을 ‘제주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9월 9일은 뇌사자 1명이 공여할 수 있는 장기가 심장·간장 등 9개에 달해 9명

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2007년에 문을 연 서귀포시 신희동 ‘라과의 집’은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혈액 투석 환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박진탁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이번 장기기증의 날을 기념해 제주도민들에게 생명나눔의 의미가 뜨겁게 전해져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여성안심 3종 세트 111가구 지원

제주도와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상담소는 여성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여성안심 3종 세트’를 111가구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여성안심 3종 세트 지원사업은 무단 주거침입·도난·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여성안심 3종 세트는 동작감지센서(외출 시 외부인 집안 침입여부 휴대폰 앱으로 확인), 창문열림 경보기(현관문 또는 창문 등 무단개폐 시 경보를 발생), 호신벨(위험발생 시 위치 및 녹음파일 전송) 등이다.

특히, 1차 신청에 이어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상담소에서는 지난

달 29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았다. 이어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고 오는 8일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 지수 중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안전부문 지수를 높이기 위해 여성 안전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도·유니세프 한국위, 업무협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서면협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체됐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통합적 아동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 정책 시행을 위한 10가지 원칙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같은 해 8월 아동친화팀을 구성했으며,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함께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친화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참여체계 마련 ▲아동권리교육 실시 ▲아동친화예산 분석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등 다양한 아동친화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9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돈등뼈 317kg ▲유진상사=오뚜기 식품 1,385개 ▲(주)쿵스도어 제주이도점=빵 205봉
 ▲금산서당골=돼지고기 112kg ▲농협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240개 ▲던킨도너츠 탑동점=빵 939봉 ▲텔문도 로스터스=빵 245봉 ▲동원F&B 제주지점=동원식품 8,354개 ▲팡스부대찌개 노형점=두부 24kg ▲팡스부대찌개 삼화점=두부 24kg ▲떡방동행=떡 461개 ▲푸레주르 제주탐라점=빵 521봉
 ▲롯데제과=롯데제과식품 9,019개 ▲모양=빵 138봉 ▲미인빵=빵 76봉 ▲비엔누아즈=빵 70봉 ▲소민떡방=떡 187개 ▲알과통상=식료품 395개 ▲약속다방=쿠키 10개 ▲주인성=돼지등뼈 150kg ▲참새방앗간=떡 795개 ▲코시롱듬비=두부 81개 ▲픽스커피공단점=빵 95봉 ▲한명진=쌀 50kg ▲해맑은 떡방=307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8월 후원금 현황 (단위:원)		
구 분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재 가 결 연 후 원	420,000	530,000
난 치 병 환 아 후 원	40,000	1,900,000
자 원 봉 사 후 원	300,000	300,000
복 지 사 업 후 원	995,000	0
푸드마켓 후원	2,865,000	242,000

발 행 안 내	
■발행인 : 고승화	■편집인 : 김성건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편집위원 : 김길웅 · 김범훈 · 한명조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편집기자 : 김승지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편집디자인 : 하늘출판인쇄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제주시 청풍남 8길 12-1)	

도서지역 나눔 푸드뱅크 운영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지난달 17일 우도현장 찾아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장나눔 푸드뱅크가 운영되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푸드뱅크는 지난달 17일 우도에서 ‘현장나눔 푸드뱅크’를 운영했다. <사진>

‘현장나눔 푸드뱅크’란 기부식품 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민·관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푸드뱅크 배분체계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도내 이웃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날 우도면 현장 나눔 푸드뱅크를 통해 우도면



저소득가구 53가구에 주·부식료가 담긴 식품 나눔 상자가 지원됐다. 이번 식품 나눔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윤 씨(사쿠라호텔 대표)의 후원을 통해 마련되었다.

고승화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시기이지만, 금번 지원된 식품나눔상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내 도서지역 복지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전했다.

방과 후 활동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제주도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이용하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3일까지 방과 후 활동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방과 후 활동서비스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지원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어린이들이 평일, 토요일을 비롯해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 성인이 자립생활 준비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6억1000여만 원을 투입해 월 44시간 내에서 2~4인 그룹을 이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행정시가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1개소) 5개 영역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이용자 욕구 충족을 위한 종사자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포함해 코로나19 심각단계 유지상황에 따른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위생·안전 모니터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며 “방학 중에도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민·관 협력과 소통 활성화 간담회



도·제주사회복지협의회, 지난달 15일 협의회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15일 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민·관 협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현장 소통의 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날 간담회는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14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따른 현장의 의견수렴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욕구에 맞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승화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서로 연대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마스크착용과 비말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된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10~11일 ‘3분기 2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신규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4시간씩 이뤄진 이번 교육은 새롭게 개정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및 자원

봉사 실적인증 가이드라인 이론교육과 VMS DB시스템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양성교육 수료생 총 29명은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실적 등록 및 관리·자원봉사일감 및 프로그램 개발·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화북동 통장협, 이웃사랑성금 전달



화북동통장협의회(회장 김경남)는 지난달 14일 화북

동주민센터에서 화북동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에 전달했다. <사진>

화북동통장협의회는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기부 등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경남 회장은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더욱더 힘든 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전달된 성금은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광동제약 사회복지시설 절수기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3~4일 협의회 앞마당

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절수기를 지원했다. <사진>

절수기 지원 사업은 광동제약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기탁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절수기는 도내 사회복지 거주시설 60곳과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됐다.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시상식

사회복지 유공자 시상식·비대면 이벤트 눈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과 기념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으로 대체해 진행됐다.

먼저 8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임태봉 제주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지사 표창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등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이어 15일에는 제주도의회의 의장실에서 사회복지유공자 5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의장 표창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 날 시상식에는 좌남

수 제주도의회의장과 양영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 함께해 수상자를 격려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이벤트도 마련됐다.

먼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도민대상 '사회복지 4행시' 결과 총 130여명이 이벤트에 참여했으며, 이중 3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수상작 순위는 온라인 퀴즈쇼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선정한 의미를 더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여유 생필품을 모아 제작하는 '십시일반 나눔상자'를 진행했다. 십시일반 나눔상자를 통해 기부받은 물품은 제주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지난달 8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의 의장실에서 개최된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지난달 8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 표창 시상식에서 제주도지사 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이벤트

십시일반 나눔상자 온정의 손길 이어져



▲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십시일반 나눔상자 만들기'를 통해 기부받은 물품 사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제21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이 여유 생필품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전달하는 '십시일반 나눔상자 만들기'에 많은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기부된 접수 품목 결과 식기류, 식료품, 생필품, 의류, 방역용품 등 다양한 품목들이 기부됐다. 나눔상자 만들기에는 그루터기, 사회복지법인 춘강,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소속 만덕이웃살피미 뜨개질봉사단, 일배움터, 제주 30 generation 복지기동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

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이어 '사회복지 4행시' 결과 모두 130여명이 참여했으며, 1등에는 황태건씨, 2등에는 조용일씨 3등에는 남선영씨가 선정됐다. 1~3위는 온라인 퀴즈쇼를 통한 도민 투표로 진행됐다. 사회복지의 날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퀴즈쇼' 역시 140여명이 참여했다.

'사회복지 4행시 짓기'



황 태 건

- 사 랑과 사람 간 떨어진 거리
- 회 복에 필요한 첫 단추
- 복 지라는 이름의 발판
- 지 금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조 용 일

- 사 랑의 손길로부터 상처는
- 회 복됩니다
- 복 지는
- 지 금 당신이 내민 손길로부터 시작됩니다



남 선 영

- 사 로운 것에 귀 기울이며
- 회 복을 향해 가는 것
- 복 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 지 금 우리 곁에 있는 사회복지의 모습입니다!

소/식/마/당

(무순)

지속적인 나눔실천 약속



국제라이온스협회 354 G지구 제주중앙라이온스 클럽(회장 오영민)은 지난달 15일 발달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원장 박주현)을 방문해 송향원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 날 제주중앙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오늘의 인연으로 매월 생필품을 후원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 실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는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센터와 반딧불이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현재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월 2회 센터와 도서관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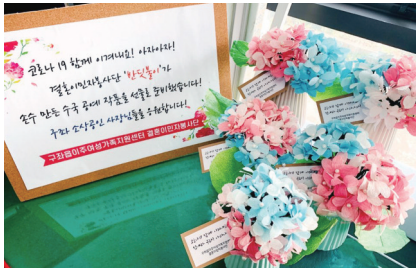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는 지난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살림살이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서랍장, 신발장, 수납장, 식탁 등 교육 참가자가 직접 리폼한 가구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전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지선)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민자 봉사단 ‘반딧불이’는 지난 8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좌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으로 종이꽃 작품 제작과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반딧불이 봉사단의 이번 캠페인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결혼이주여성 불안 및 우울감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식품나눔마켓 지원금 전달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지난달 22일 모금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에 찾아가는 식품나눔마켓 지원금 3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찾아가는 식품나눔마켓은 읍·면 지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푸드마켓 차량을 이용해 읍면지역을 찾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물품을 지원한다.

지역장애인 위한 나눔 앞장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대장 최현환)와 오라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회장 고영호)는 최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역장애인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대표이사 한정효)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번에 탐라장애인복지관에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관 이용자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어르신 삶의 만족도 높여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해 지난 8월부터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능활동 ‘VIVA청춘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VIVA청춘예술단’은 연극, 노래, 댄스 등 소규모 반을 구성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해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고자 한다.

꿀 선물세트 100개 기탁



제주시는 지난달 17일 제주허니양봉원(대표 김형후)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꿀 선물세트 100개(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형후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M세탁비누 만들기 봉사 펼쳐



채린이네가족(대표 황희정)은 최근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에 방문해 EM세탁비누 만들기 지원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채린이네가족은 가족단위로 구성된 봉사팀으로 이 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시설에서 입주민들이 사용할 친환경EM세탁비누를 만들고, 주방업무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밤바다 영화제’ 성황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지선)은 지난 8월 21~22일 제주마을소리문화연구소와 함께 ‘밤바다 영화제’를 진행했다.

밤바다 영화제는 바다환경에 관한 영화 소개와 자연과 지구, 인간이 만든 재해로 변해버린 일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영화 상영, 친환경과 관련된 공예품 만들기, 캠페인들을 진행하는 행사로 올해 3회를 맞이한 행사다.

토속된장 전통식품 품질인증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원장 조인석)는 지난 8월 31일 어울림터에서 생산하는 된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표준규격 및 심사기준에 합격해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식품원 전통 제1157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은 국내산 농수산물에 주원료로 제조·가공·조리된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다.

효도밥상 나눔 봉사활동 운영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최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관장 황태영)과 제주도의 지원사업으로 청소년 해나 봉사단 ‘효도밥상 나눔 봉사활동’을 연계 운영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청소년자원봉사자 10여명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홀로사는 어르신 한분 한분에게 1대1로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는 사업이다.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⑬

매직브러쉬(문화·예술)

벽화그리기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 매직브러쉬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고등학교 미술과 학생들이 만든 자율동아리 ‘매직브러쉬’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매직브러쉬는 자율동아리로 교내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다 2018년 봉사활동 단체로 창단되어 도민체전, 제주유스아트페스티벌, 창설미술관 개관 기념행사 등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8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20여명의 단원들이 매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매직브러쉬는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이나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벽화그리기 활동을 계획해 2019년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봉사단에 선정되었고, 은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벽화그

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미술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아름다운 제주 만들기’에 기여했다.

은성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내·외부가 모두 낡아서 이용자들에게 여러 불편함이 있는데, 봉사단이 직접 그린 벽화를 통해 시설 이용자들에게 산뜻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매직브러쉬 단원은 “공동의 작업 활동을 하면서 단원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진행하면서 우리의 작은 재능이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청년발달장애인과 반려식물 나눠요”

일배움터(원장 오영순)는 지난달 15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이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와 함께 ‘청년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반려식물 나눔 활동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플로베를 배달하는 청년들’의 청년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준비한 반려식물을 무료로 배달해 감동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플로베를 배달하는 청년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주체가 되는 반려식물 무료배달



자원봉사동아리로서 지난 4월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에서 창단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제주삼다수 Happy+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며 지역 내 취약계층 125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반려식물 화분을 전달하고 찾아가는 정원가드닝, ‘내 화분을 부탁해’ 화분재활용 캠페인 등을 펼칠 예정이다.

바다환경정화 활동 실시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윤인노)는 지난달 12일 별랑포구와 삼양해수욕장 일대에서 삼양불가사리 활동의 일환으로 바다환경정화를 실시했다. <사진>

삼양불가사리는 올해 5월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2020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모집 공고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매월 2회씩 바다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쉼터 관계자는 “이번 불가사리 활동은 어른들이 주도하는 봉사활동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실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자조활

동 등의 지원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도는 연말까지 총 60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

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가 맡고 있다.

도는 동료 지원가 임금(월 최소 60시간 근로조건, 4대 보험 가입 포함), 사업 참여자 수당 및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소개 ① 제주시사회적협동조합

수급자 자활·자립 지원 역할 ‘톡톡’

제주도내는 환경파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 추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존재한다. 이에 지면을 통해 이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제주시사회적협동조합 소개

제주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차용석)은 2018년 ‘제주시민의 자활, 제주의 자활’을 미션으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난 2017년 제주수눔음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출발해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했다. 2018년에는 자활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2020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현재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고용해 수급자의 고용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재활용가게 ‘요디’ 및 위시엔조이 법원점

재활용가게 요디는 기증받은 여분의 의류와 잡화를 수선해 재판매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더 - 쓰임’이라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위시엔조이 법원점(제

주시 고산동산 6길 1)은 셀프 빨래방으로 요디가게와 ‘shop - shop’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규모단체의 세탁과 개인 세탁을 대행하고 있다.

▲ 자전거수리센터

자전거수리센터(제주시 서광로2길 24)는 제주시 민간위탁 사업으로 제주시 거점형 자전거 정비수리와 이동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 수리점이 없는 읍·면 지역과 섬지역(추자도, 우도)에 이동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1회 이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동수리는 고가형 자전거를 제외하고 기본적인 부속값을 지원하는 등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은 왼쪽부터 자전거수리센터, 요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협업 사업으로 제주시내 마트와 제주국제공항, 제주대학교 등에 플라스틱 압축기를 설치해 플라스틱과 캔을 분리 배출하면 제주시민에게 포인트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환경부 시범사업인 무색페트병을 수거 관리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무색 페트병은 1차 플레이크로 가공 후 장섬유로 생산되어 신발이나 의류 제작에 사용된다.

▲사무기기 판매·렌탈

사무기기 판매와 렌탈 사업은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무기기와 소모품 판매, 네트워크 공사 등 사무기기 관련 모든 기기를 납품하고 임대하고 있다. 문의:064-752-5381.

시론

“한 시간은 잡니다”

지난 1월부터 여태 코로나 19의 재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질병 바이러스 앞에 꼼짝없이 갇혀 사는 형국이다. 유행처럼 팬데믹을 치더니 장기화하면서 사람들이 피로감에 쌓여 무기력해졌다.

하루 수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선제적 대응으로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으로 이름을 떨쳤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제적 대응으로 이름 떨쳐

그런 명성을 얻은 데는 방역 현장에 몸을 던진 수많은 의료진과 구급 인력의 개인적 헌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익히 안다. 이 시대의 소리 없는 영웅들, 그들의 거룩한 희생은 지금도 숨 가쁘게 지속되고 있다.

그중, 우리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얼굴이 특별히 뇌리에 각인돼 있다. 지난 1월부터 매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현황을 국민에

게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간절했고 내용은 소상하고 치밀했다. 단지 현황에 그치지 않고 의학적 근거에 의해 분석하면서 신중히 전망했다. 국민들이 그를 신뢰한 이유다.

질병이 퍼지는 사태 속에 이뤄진 그와의 공감대는 마침내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어 가는 머리카락’ 세 컷을 비교해 놓은 영상이 시선을 빼앗았다. 갈수록 수척해지는 얼굴과 세어 가는 머리에서 그의 노고가 느껴졌다. 브리핑 뒤 기자와의 문답 내용이 가슴에 울림으로 왔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시죠?” “한 시간은 자고 있습니다.” 여운이 있었다. 잠잘 시간이 없을 만큼 쫓기면서도 그나마 한 시간은 자고 있다는 것, 얼마나 군색하고 여복한 답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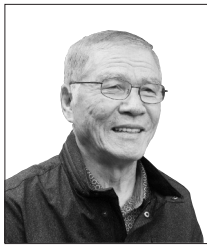
코로나19 감염이 높낮이를 거듭하면서 200명 이하의 추세가 이어진다. 코로나19에게 물어보아야겠지만 확진자가 턱없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닌가. 그걸 가능케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해 방역 현장을 사수

하는 소리 없는 영웅들이 이 나라에 적잖다.

질병관리본부 첫 승격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직접 찾아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초대 청장이 된 정은경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차관급 청장에게 청와대 밖에서 임명장을 준 건 이례적인 일이다. 비상시국을 고려한 배려였을 것이다. 컨트롤 타워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정 청장의 말이 울림으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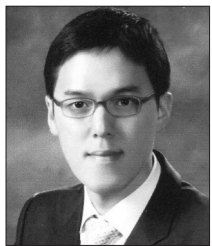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현장, 정은경 청장은 본부장 시절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75

연 30%의 이자?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A가 2019. 7. 1. 친구인 B로부터 100만 원을 연 30%의 이자를 1년마다 주기로 하고 3년간(변제기 2022. 6. 30.) 빌린 경우 A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할까? 약속을 했으면 모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적으로 잘 따져 보아야 한다.

빌려주는 사람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금전과 동일한 종류·질·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 금전소비대차를 함에 있어 대부분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를 설정해 이자를 제한하고 있다.

2020년 현재 금전소비대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24%이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율을 약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채무자가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제 2조 제4항)

또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규정도 두고 있다.(제8조 제1항)

위에서 예로 든 계약의 이자 중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자율은 연 24%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A는 첫째 이자로 24만 원, 둘째 해에도 같은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2022. 6. 30. B에게 원본 100만 원과 이자 24만 원을 더한 124만 원을 갚으면 된다.

만약 2년간 이자로 3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면 이 중에서 24만 원을 넘는 6만 원씩은 원금을 갚은 것이 되어 변제기에 112만 원(100-6-6+24)을 갚으면 된다. 3년간 30%씩 총 190만 원을 이미 다 지급하였다면 6만 원씩 3번에 해당하는 18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별기고

협의회 역할을 선명하게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로 사무처장에 임명된 이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릴 기회를 기다렸지만 코로나19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부득이 이 귀한 지면을 빌려 인사드립니다.

지난 20여 년간 유지되어 오던 상근부회장 직제가 폐지되고 사무처장 직제가 신설되자 많은 분들이 이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변화의 시작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상근부회장의 역할이 크고 중요했으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자리를 대신해 사무처장에 임명된 만큼 그동안 상근부회장으로 애써 주신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고 쓰임새가 다 하는 날까지 제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복지현장과 회원들의 요구를 담은 회장님의 협의회 운영철학을 근거로 사회복지협의회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선명하게 해 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협의회회의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

35년간 이룬 숲 가꾸어 갈 것

이를 위해 전 직원의 지혜를 모아 제주사회복지협의회만이 할 수 있는 일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기존 교육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인정과 보상기반을 확대해 사회복지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물론 기부식품 나눔 사업의 인프라를 확대해 균형 있는 나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복지정보제공 플랫폼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가족들의 노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년이면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습니다. 35년 전 선배 사회복지인들이 심은 연대와 협력의 씨앗이 오늘날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와 복지현장에 큰 그늘을 드리우는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숲에 아름다운 길을 내어 쉼터를 만들고 웃음소리가 들리도록 더욱 깊고 넓게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막 첫 걸음 내딛었습니다. 당연히 서투르고 부족합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사무처장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수어상담 도수어통역센터(영상전화 010-3449-3920)
손말이음센터(국번없이 107)

문자상담 1877-2126



- ▶ 1차 상담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 2차 상담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사)청소년과 미래,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